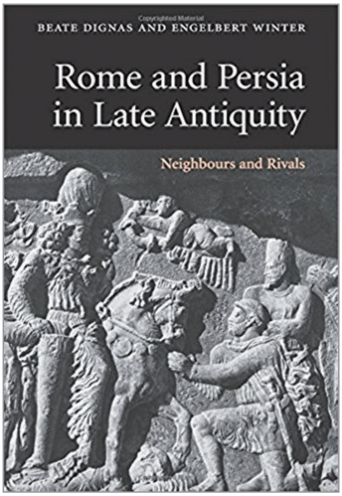

제목	Rome and Persia in Late Antiquity: Neighbours and Rivals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Cambridg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07. 10. 8.
저자	Beate Dignas, Engelbert Winter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364
ISBN 또는 ISSN	978-0521614078

내용 요약

이 책은 1부에서 3-7세기까지 로마와 페르시아의 관계를 요약하고, 2부에서 주요 사료에 관해 설명한 글이다. 1부는 사산조의 기원, 샤푸르 2세 치하의 갈등, 로마의 동부 변경 지역, 사산조의 팽창정책, 사산조의 힘과 쇠퇴 등을 연대기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부는 정치적 목표, 전쟁, 군사적 대치, 외교적 해결, 강대국 사이의 아라비아, 지속적인 갈등, 크리스트교와 조로아스터교, 황제와 왕 중의 왕, 서부와 동부의 정보 교환 등 주제별로 관련 사료들을 소개하고 있다. 관련 주제에 대해 디오, 헤로디아누스, 암미아누스, 프로코피우스, 리두스, 아가티아스, 유세비우스, 락탄티우스, 플리니우스 등의 로마 사료와 교회 사료, 알-타바라, 이븐 미스카와이흐 등의 아라비아 사료, 아르메니아 사료 등을 발췌하였다.

저자의 목표는 "서구의 사료의 선입견을 비판하고, 페르시아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친로마적인 시각은 도전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동부 지역을 대변하는 사료들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로마의 입장에서 사건들을 연구하여 왔다. 363~591년 사산조가 로마인들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그들의 재정적인 필요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페르시아인들은 로마 황제들이 제공하는 공납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황제들이 지불하는 돈은 너무 작아서 왕 중의 왕의 경제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또 로마가 제공하는 금화는 은화 체제인 사산조에서 사용할 수도 없었다. 결론은 로마가 지불하는 돈은 '보조금'이 아니라 실제로 '공납'이었고, 서구의 사료는 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